남기고 갈 이야기

장도영장군과 함께한 파란의 생애 [4]

전속부관 석장石墻 權重殷옹의 일대기

▲ 1959년 12월 예하 부대를 시찰나간 장도영 2군사령관을 수행하던 권중은 부관. 전용기에서 내려 영접 부대장에게 악수하는 게 장장군, 그 뒤가 권대위.

▲ 1959년 12월 같은 무렵의 시찰에 장장군을 수행하는 권중은 부관. 민간 단체장에게서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있는 게 장사령관, 그 뒤가 권부관.

• 육군본부 시절

어떤 때 장도영 장군은 통역장교를 겸한 전속부관을 두지 않고 그 일을 권중위에게 맡겼다. 권부관이 고사하며 ‘ 그것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안된다 ’고 할라치면 ‘ 영어는 내가 하잖아. 걱정 말고 맡아 해 ’ 하고 묵살하는 게 장군의 명이었다. 그래서 초급장교인 권중은 부관은 2성, 3성의 장도영 장군에게 그림자나 분신처럼 부속되어 따라다니게 되었다. 어떤 때는 멀리 출장을 가 숙박하는 일도 있었다. 타지의 호텔방 같은 데에 절대 여자를 들이는 일이 없는 장장군은 숙박비도 부대에서 출장비로 가지고 온 것을 부관이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케 했다. 그런데 그 출장비용을 줄이자면서 권부관더러 자기방에서 같이 자자 하였다. 이에는 권중은 중위도 ‘ 각하(이때는 장군을 공식으로 각하라 칭했다), 제발 그것만은 용서하십쇼. 제가 각하를 모시고 한 방에서 잤다는 소문이 나가면 각하의 체통도 체통이려니와 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못받들겠습니다 ’ 하고 사정하면 ‘ 그래? 그럼 자네 편한대로 하라우 ’ 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소탈하면서도 원칙에 엄격하던 장장군은 전시의 비리천하에서도 상하간 누구에게 무엇을 바치는 일도 받는 일도 없었다. 어떤 때 부하에서 장군에게 선물할 것을 권부관에게 대신 전해드리도록 맡기는 수가 있는데, 어찌 보아서도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는 장군 몰래 대학 교수인 그 부인에게 전하였고, 그러면 부인이 받아 두되 장군에게는 말 아니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장장군 밑에 13년을 있으면서 권부관은 단 한번이라도 몇 푼의 행하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동기나 선후배 항공장교 중 어떤 장군을 모신 아무개 대위는 평소에 받은 행하를 모은 것이 당시 한 재산을 장만하는 바 된 경우도 있어 사실 부럽지 않은 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시절에도 장장군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권부관도 군인으로서 야전에 나가보고도 싶고 초등군사반 같은 데 교육도 나가 받아 진급을 함에 유리한 경력을 쌓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장군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았다. 한번은 전방에서 백인엽白仁燁 장군을 태우고 대구에 1박2일의 출장을 한 적이 있었다. 평소에 눈여겨 보아 두었던 터인지, 이 출장 비행 이후 백장군은 자기 비행기를 몰아달라 하였다. 그러면서 ‘ 장장군 형님께는 ’ 이야기해 놓았으니 걱정 말고 오라 하였다. 당시 백인엽 장군은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그 친형 백선엽白善燁 대장과 이승만 대통령 밖에 없다는 소리가 돌만큼 호쾌하면서도 독선적인 데가 강했다.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는 말도 있거니와 그처럼 자기를 여기는 백장군을 한번 모셔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도 않았으나 장장군에게서는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기 입으로 장장군에게 ‘ 각하께서 소관을 백장군께 내주시겠다고 승낙하셨습니까 ’ 하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다시 백장군에게서 독촉의 부름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 모시고 있는 장장군께서 각하께 가라 하명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장군께서 소관을 버리시지 않는데 소관이 제발로 간다면 이는 장장군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주인을 배반하고 오는 소관을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 백장군은 껄껄 웃고 말았다. 세월이 지나고 피차 민간인 신분일 때 어찌 수소문이 되었는지 백장군이 한번 오라는 연락을 하여 인천의 한 학교법인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백장군은 큰 육영사업을 벌여 놓고 정신없이 바빠 보였는데 심복할 사람이 없다며 그 관리경영을 좀 도와 달라 하였다. 이른바 ‘ 반혁명세력 ’으로 몰려 실업자 신세로 있을 줄 알았던 ‘ 권부관 ’이 ‘ 제가 지금 어디 좀 매여 있어 각하를 돕기는 어렵겠습니다 ’ 하고 말하자 백장군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권부관은 그냥 어떤 기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보며 밥먹고 있다고만 대답하였다.

각설하고, 권부관이 8사단에서 7,8개월 근무하는 동안 휴전이 성립되어 전선에서 만 3년여 만에 총성이 멎고 장도영 사단장이 재직 10여개월 만에 같은 화천지역의 2군단장으로 영전하여 옮겨감에 따라 권부관도 2군단으로 전보되었다. 2군단장은 정일권 중장이었는데 대장 진급과 함께 두번째로 육군참모총장이 되어 전임 백선엽 대장에 이어 서울의 육군본부로 들어감에 따라 장장군이 그 뒤를 이은 것이었다. 2군단은 화천에 소재하면서 1953년 7월의 휴전을 맞은 다음 그 해를 넘기고는 춘천의 샘밭이라는 곳으로 옮겨 물러앉았다. 2군단장이 되어 미구에 장도영 장군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 군단장 재임 1년여 만에 육군본부의 작전참모부장이 되어 서울로 오고 권부관도 따라 올라오게 되었다.

권중은 부관이 장도영 장군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은 대개 1955년초였다. 서울은 아직 전쟁 파괴의 쑥밭에서 미군의 깡통껍질을 이어 지붕을 때우며 복구의 생존에 몸부림치는 수라장이고, 그러면서도 넘쳐나는 이북의 피난민과 시골에서 먹고살 길을 찾아 무작정 상경하는 이향민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한편, 권중위는 춘천의 2군단에 있을 때 결혼을 하여 신부 아내가 양수리 본가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서울로 오게 됨에 따라 우선 종로5가에 셋방을 하나 얻어 신접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이때 부친이 이 작은아들을 위해 서울에 집을 하나 사주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양수리에 소유하고 있던 2만여 평의 토지 중 일부를 분급해 명의변경을 해주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돌아가시게 되니 본디 꾀병이 많고 일하기를 싫어하던 백씨의 전유가 되었다. 미구에 이처럼 한량이던 백씨가 도박빚으로 그 재산을 날릴 때 먼저 아우의 몫 토지부터 인감을 위조해 저당잡혀 모두 오유烏有가 되고 말았다. 이 바람에 신접살림을 하면서 자녀가 출생하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초급장교 수입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셋방살이가 고달팠다. 종로5가에서 동대문 밖으로 나가 창신동 · 숭인동 일대를 맴돌며 몇 번이고 세를 올려달라 하는대로 이사하며 살았다. 그리고 장장군이 광주 · 대전 · 대구 등 지방으로 옮겨다닐 때는 처자를 서울 셋집에 두고 따라가 사령관의 관사에서 가족의 일원과 같이 숙식하였다.

처음 권부관이 장장군을 8사단에서 모시고 있을 때 장군의 서울집은 혜화동 로터리의 파출소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집이었다. 그 집에서 장장군은 조부모를 모시고 여러 동기간과 함께 살았다. 이화대 교수인 장군의 현부인 외에 전부인의 소생 자녀도 있어 대가족이었다. 장군의 생모는 여러 자녀를 다 성취成娶시키지 못하고 중년에 별세했다. 부친이 중년에 상배를 하여 속현續絃하였는데 이 때문에 부친이 계모와 따로 강남의 흑석동에 나가 살게 되어 장장군은 조부모를 모시고 사실상 가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다. 장군의 이 혜화동 집은 천주교의 수녀원과 함께 있는 유명한 동성고등학교와 길을 건너 마주하고 있었다. 또 지금 서울시 문화재로서 ‘ 장면가옥張勉家屋 ’이라 하여 보존되고 있는 2공화국 장면 국무총리의 혜화동 집과는 2백여 미터 거리이다. 뒤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숙명관계가 되는 장면과 장도영 두 인물이 어떤 연유로 이처럼 지척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권중은은 아는 게 없었다. 또 두 인물이 언제부터 서로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장도영 장군의 부인은 장면 박사의 부인과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자주 찾아가 만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일로였는지는 또한 알지 못한다 하고 있다.

장면과 장도영은 고향이 같은 평북 출신에다 같은 장씨이다. 장면은 일제하 동성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혜화동 그 집에 오래 살았다. 장도영은 몰라도 그 부친이나 조부는 동성 친족으로서 선대부터 장박사의 집안과 교의交誼가 있어 해방후 월남해서는 그런 연고를 찾아 장박사가 가까이 사는 한 동네로 우거를 정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장도영이 해방후 중국 서주徐州에서 일본군 학병 장교로 복무하다 만주로 귀국해 모교 신의주 동중에서 잠시 두 번째 교편을 잡고 있다가 공산치하의 사세가 급변함을 보고 조부모 이하와 함께 서둘러 남하하였으므로 연고가 없던 서울에서 장박사 같은 동성친족의 인사를 찾아 그 가까이에 우거를 정했을 것은 당시의 인정으로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장도영 장군은 춘천에서 2군단장으로 복무하던 시기 서울의 집을 이 혜화동에서 원효로로 옮겼다. 대가족에 초협하고 동생 남녀도 성장하여 방도 더 필요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사한 원효로 집은 담 하나를 사이 두고 이웃에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金昌龍 소장이, 길건너에는 김계원金桂元 장군의 집이 있었다. 장장군이 육본으로 올라왔을 때 그 숙소는 이 원효로의 집이었고 권부관은 이 원효로 사저를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당시는 육군본부에 항공감실이 있고 그 예하에 육본항공대가 있었다. 권중위는 작전참모부장의 전속부관이지만 소속은 이 부대가 되어 동대문 밖 신설동 로터리에 있던 구 경마장 자리의 육군항공대 비행장이 근무처가 되어 있었다. 근무지라기보다 대기처와 같아 그곳에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 장참모부장이 육본에서 지프차를 타고 나와 전용 비행기를 타고 주로 전방 지역으로 출장지휘를 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육본 작전참모부장 자리가 예사 바쁜 것이 아니었다. 전 육군의 작전지휘를 총괄하는 바여서 휴전이 성립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디서 또 국지전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긴장은 팽팽하던 터여서 쉴 사이 없이 전방 각군부대를 찾아 날아다녔다. 그러므로 권부관은 장군이 언제 달려와 비행기를 띄울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하는데 그런 출장비행을 언제 나가게 될지 장군 자신도 예정을 못하는 터였다.

그렇게 바쁜 작전참모부장직에 1년 쯤인가 재직하다가 장장군이 이번에는 군수참모부장